

PA-36

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국산 채종을 위한 육묘 기술

이윤호^{1*}, 장현수¹, 김대욱¹, 윤종탁¹Yun-Ho Lee^{1*}, Hyeo-Soo Jang¹, Dae-Uk Kim¹, Jong-Tak Youn¹¹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¹Dep. of Crop Physiology and Production,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, 181 Hyeoksin-ro, Iseo-myeon, Wanju-gun, Jeollabuk-do 55365, Republic of Korea

[서론]

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의 수요량은 연간 약 6,100톤(200억원)으로 대부분 해외생산 및 수입(약70%)의존하고 있다. 한편, 국내 재배 환경에 있어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10월 상·중·하순으로 이시기에 가을장마가 내릴 경우 트랙터가 진입을 못하여 적기 파종이 어려울 수 있다. 또한,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줄뿌림으로 채종 재배를 할 경우 파종량은 헥타 당 20kg으로 파종량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대상으로 이앙재배 기술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육묘기술을 개발 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(품종: 코원어리)의 상자당 파종량은 60g과 90g으로 10일, 12일, 15일 20일 육묘와 함께 육묘 기간 평균 온도 15℃(10월 중·하순 평균 온도)와 24℃로 나누어 육묘 초장, 묘건물중, 묘충실도, 발근장, 발근중, 발근수 등을 조사하였다. 또한 온도 별 15℃, 18℃, 21℃, 24℃, 27℃로 나누어 출현일과 출현 속도를 조사 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본 연구 결과 평균 상자당 상토량은 2630~2650g이고 복토량은 68~700g이었다. 파종량 60g의 15℃ 온도에서는 12일이 15일과 20일 육묘에 비해 초장과 건물중은 낮았으며 15일 이후 묘가 쓰러지는 현상을 보였다. 한편, 파종량 90g의 15℃ 온도에서는 15일이 10일, 12일에 비하여 초장과 건물중이 높았다. 또한, 파종량 60g과 90g의 24℃에서는 12일과 15일 육묘에는 초장과 건물중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7일 이후 입고병이 발생하였다. 온도별 출현 일은 27℃가 파종 후 2일에 출현하였고, 15℃와 18℃는 파종 후 5일에 출현하였다. 본 연구 결과 종자 비용 절감, 육묘 기간 및 묘 충실도를 고려하여 파종량 60g과 약 12일 육묘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이앙재배시 적절한 육묘 일로 판단된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작물시험연구 사업(사업번호: PJ016079012021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*Corresponding author: E-mail, zooz@9005.korea.kr Tel, +82-63-238-5269